

# 저가하도급심사제도 의무화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김경희 /  
대한설비건설협회 상임이사

1,0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다. 건설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부실건설업체의 퇴출이라는 당초 제도도입목적과는 달리, 저가낙찰을 방지하는 보증제도의 강화 등 각종 조치에도 불구하고 평균 낙찰률이 64% 정도에 불과했다.

일반건설업계는 저가낙찰은 부실공사의 주범이라고 하며, 저가심의회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 등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예정금액의 75%미만으로 응찰시에는 저가심의의 의무화하는 “저가심의회” 도입을 주안점으로 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동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일반건설업체의 하도급을 주로 하는 설비건설업계도 원도급업체인 일반건설업자가 적정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 저가심의회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건설현장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하도급자의 저가하도급을 심사할 수 있는 “저가하도급심사제도” 도입이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

저가하도급심사제도는 1984년 도입된 이후 그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어 저가하도급심사기준이 강화되었으나, 1998년 특별한 사유 없이 폐지되었다. 1998년은 IMF이후 극심한 불경기과 건설물량의 감소로 인한 설비건설업계의 과당경쟁과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저가하도급심의회 폐지로 인하여 하도급업체의 수주단가는 수직하락 하였다.

최근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아파트 분양가는 1998년보다 2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1000억원 미만 공공공사는 설계금액의 83% 이상을 보장받고 있으나, 하도급업체의 수주단가는 1998년도 하도급단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설계단가의 64%대의 수주금액이 “저가”라서 공사를 못하겠다는 일반건설업계의 아우성 소리는 전달되고, 설계단가의 50% 미만, 심지어 30%대의

저가하도급에 대한 전문건설업계의 신음 소리는 정책당국자에 전달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물론 건설교통부에서는 2003년 1월 11일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을 고시하여 원도급자 수주금액의 82%미만으로 하도급시에는 저가하도급을 심사토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임의규정이고 또한 현재 내역입찰제도에서, 원도급자가 공사계약시 하도급을 줄 부분은 얼마든지 설계금액보다 하향조정하여 계약할 수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협회는 회장단을 중심으로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국회 등에 저가하도급심사제도를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도입하여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저가하도급을 심사토록 건의하였으나, 정책심의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저가하도급심사제도를 의무화한다는 건설교통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재정경제부에서 동제도 도입검토를 유보하였다.

다행히 금번 국회에서 검토중인 의원입법(안)에 하도급저가심의제도 의무화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동 법안은 전문건설업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다른 법안과 함께 포함되어 있어, 동 법안의 국회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동 법안이 통과되어도 시행시기가 시행령 개정일인 2004년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설비건설업을 포함한 전문건설업계는 저가하도급으로 인하여 IMF때보다 심한 경영악화와 회사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은 곧바로 부실공사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자명한 현실이다.

이 지면을 통하여 정책당국자에게 건의하고 싶다.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법안 통과, 시행령 개정 이러한 절차를 기다리기엔 전문건설업계가 처한 자금의 현실이 너무나 급박하다.

우선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개정하여 금년도 하반기부터 공공공사에 먼저 저가하도급심의제도를 도입하자.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내년도에는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에 저가하도급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저가하도급을 회피할 수 있는 “이중계약”에 원도급자는 물론 이에 응한 하도급자도 처벌하자.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공공공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사현장의 일반사항을 비롯하여 시공상태, 공정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의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설비공사의 고품질시공에 견인자 역할을 하고 있다.

